

## 유틸리티 글로벌, 시오다 테츠야(塩田哲也) 씨를 상급고문 겸 일본대표로 임명

전 일본제철(日本製鉄) 총괄부장,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사업 확장과 파트너십 강화를  
담당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 2025 년 10 월 9 일 –

경제적인 산업 탈탄소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유틸리티 글로벌(Utility Global, 이하 ‘유틸리티’)\*\*은 오늘, **시오다 테츠야(塩田哲也) 씨를 \*\*상급고문(Senior Advisor) 겸 일본대표(Japan Representative)\*\*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시오다 씨는 40 년 이상에 걸친 **글로벌 제철 및 탈탄소화 분야의 전문 지식**을 유틸리티에 더하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을 위한 솔루션 제공에 있어 유틸리티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오다 씨는 일본제철에서의 **눈부신 40 년간의 경력**을 마치고 유틸리티에 합류했다.

지질학을 전공한 그는 폭넓은 지식과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제선(製銑) 기술개발, 생산관리, 에너지 최적화, 원료 평가, 탈탄소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시오다 씨는 1990 년대 일본의 초기 철광석 용융환원 프로젝트에서부터, 최근의 **수소 및 저탄소 원료(환원철, 바이오카본 등) 평가, 그리고 CO<sub>2</sub> 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일본제철의 탈탄소화 추진 전략 전반에 깊이 관여해왔다.

그의 평생에 걸친 업적은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또한 전 세계 주요 제철사 및 원료 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탈탄소화를 선도해왔다.

유틸리티 글로벌의 **\*\*파커 믹스(Parker Meeks) 최고경영자(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오다 씨를 유틸리티 글로벌에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철강 제조 운영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 철강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걸친 강력한 산업 네트워크는,

유틸리티의 **H<sub>2</sub>Gen® 솔루션이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상용화 활동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대단히 큰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시오다 테츠야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틸리티 글로벌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유틸리티의 혁신적인 기술, 즉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고농도의 CO<sub>2</sub>를 분리·배출하는 공정**은

철강산업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산업 리더 및 아시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유틸리티의 **H<sub>2</sub>Gen 기술을 통해 저비용·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급고문 겸 일본대표로서 시오다 씨는 **일본의 철강업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 파트너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력**을 주도하며,

배출 감축이 어려운 산업들이 **\*\*경제적 경쟁력과 대규모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력 불요형 수소 생산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데 힘을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유럽 고문으로 유틸리티에 합류한 **타타스틸 유럽 및 티센크루프 전 임원인 헨리크 아담(Henrik Adam) 박사**와 함께

유틸리티의 **글로벌 어드바이저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 유틸리티 글로벌(Utility Global) 소개

유틸리티 글로벌은 철강, 모빌리티, 석유·가스, 정유, 화학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을 위한 경제적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유틸리티의 혁신적인 **H<sub>2</sub>Gen® 기술**은 산업 오프가스 및 다양한 바이오가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

독자적인 전기화학 공정을 통해 **전력 없이 물로부터 고순도의 저(또는 음의) 탄소 수소를 생산**한다.

H<sub>2</sub>Gen 시스템은 **탁월한 운전 유연성과 기존 인프라와의 완벽한 통합성**을 갖추고 있어, 비용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H<sub>2</sub>Gen 은 **고농도의 CO<sub>2</sub> 스트림을 생성하여 탄소포집(CCS) 과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모듈형·확장형으로 설계된 H<sub>2</sub>Gen 은 **최소한의 설치 공간으로 저가 원료를 고부가가치 청정에너지·연료·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이 높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틸리티는 산업 탈탄소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프라이빗 에쿼티 기업 아라 파트너스(Ara Partners)\*\***의 포트폴리오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utilityglobal.com](http://www.utilityglob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아라 파트너스(Ara Partners) 소개

아라 파트너스는 **산업 탈탄소화에 특화된 글로벌 사모 및 인프라 투자회사**이다.  
2017년에 설립된 아라 파트너스는 산업·제조, 화학·소재, 에너지 효율·그린 연료, 식품·농업 분야에서  
**탈탄소화 효과가 큰 기업의 구축과 성장을 지원**해 왔다.  
휴스턴, 보스턴, 워싱턴 D.C., 더블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23년 12월 제 3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28억 달러 이상을 조성**하였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아라 파트너스의 **운용자산(AUM)은 약 66억 달러**에 달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arapartners.com](http://www.arapartner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